

「靈樞經」과 니가떼

關西大 宮下三郎

『靈樞經』と苦手

要 約

日本には苦手という習俗が現存している。苦手の人が蟹^{かに}をつかむと、その甲と手足が分れてしまうと、苦手の手にかかった料理は何もかもうまくなく、梅漬に紫蘇の葉を入れると梅が黒くなってしまうという。江戸時代の小説や歌舞伎にも「おれが手は苦手ぢゃ。指が触れると積聚^{はもいた}はなおりおさまる」と、不思議な力をもつ苦手の話がある。18世紀初めの日本の医者は、この苦手^{はもいた}の習俗と『靈樞經』の官能篇に載る苦手が同一基源だと見た。17世紀の日本の医学界には中国古典医書のリプリント版が盛行しており、『靈樞經』の苦手の記事は4種の和刻本に載っていた。12世紀に日本では楊上善の『太素經』を筆写しており、これにも『靈樞經』の苦手^{はもいた}がのるが、日本の苦手^{はもいた}の習俗の成立は17世紀をさかのぼらないようである。以上、苦手^{はもいた}の習俗を手がかりとして『靈樞經』成立の秘密に迫りたい。

中國의 醫學古典의 하나인 「靈樞經」은 매우 難解한 책이다. 그러나 漢方이나 針灸의 내력을 알기 위해서는 이 책을 解讀하여 理解하여야 한다. 또 醫學뿐만 아니라 一般文化와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오늘날의 日本文化와도 전혀 無關係하지는 않다. 苦手라는 用語를 실마리로 하여 그런 관계를 살펴 보기로 한다.

1

우리가 일상 사용하는 「니가떼」(苦手)라는 日本語는 묘한 말이다. 『나는 그 여자가 니가떼다』라든가 『그는 國語가 니가떼다』와 같이 사용하는데, 나와 기분이 맞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상대, 또는 잘 하지 못하고 서툴다는 뜻이다. 苦手가 漢語가 아님은 말할 나위도 없고 中國語로는 『不好對付的人』, 『他最討厭國文』 정도의 표현이 될 것이다.

興味를기는 民族學上의 어프로치이다. 南方熊楠이라는 사람의 「뱀에 관한 民俗傳説」(1917) 속에서 니가떼를 다루고 있다.¹⁾

흔히 살무사(毒蛇) 손가락이라는 말이 있는데 손가락을 뺏았하게 뿔 때 손끝의 第1關節만이 꼬부라져서 독사뱀이 머리를 쳐들었을 때 모양이며 다섯 손가락이 모두 그럴 때 그런 손을 니가떼(苦手)라고 하며 뱀이 그런 사람을 만나면 무서워 꿈작을 못하게 되어 헛사리 잡을 수 있다고 한다(『郷土研究』, 4卷, 502페이지). 나의 지금 現住地 고장 사람들의 俗信에, 살무사 손가락의 손톱은 옆으로 넓으며 그런 손으로 어루만지면 가슴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멈출 수 있으며 그 사람의 손이 든다고 한다. 나의 아내가 왼손만이 살무사 손가락이기 때문에 남편 이상 가는 左黨(일본말로 술꾼을 말함…譯者註)이 아닐까 걱정하였으나 사실은 한방울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안심이 되었다. 또 苦手인 사람이 게(蟹)를 손으로 잡으면 얼마 안가서 다리가 게딱지에 서 떨어진다고 한다.

1) 平凡社版「南方熊楠全集」, 第1卷, 175페이지.

여기에 나오는 나의 現住地란 和歌山縣의 田邊라는 곳이라고 생각된다. 뱀과의 관계가 나오는 것은 뱀손가락이라는 이름의 내력일 것이다.

柳田國男은 1942년에 苦手 이야기를 「民間傳承」에 두개 쓰고 있다. 25號의 “니가메 이야기”에서²⁾

田中梅治翁의 遺著「粒粒辛苦」라는 책에(애덕 月刊 兼報 48), 島根縣邑智部の 事實이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地方에서는 사람의 손에 苦手와 甘手が 있으며 苦手が 만진 料理는 모두 맛이 나쁘다. 토란 줄기를 꺾어서 요리를 만들어도 떨어져서 옥구멍이 아리며 누리장나무 잎을 데쳐도 쓴 맛이 많아서 먹을 수 없으며 우메보시(梅實장아찌)를 만들 때 차조기(紫蘇)잎사귀를 넣어도 빨간 색이 되지 않고 껌명게 된다. 이와 반대로 甘手인 사람이 우메보시를 만들면 보기 좋은 빨간색이 된다. 토란줄기, 누리장나무잎, 기타 모두 맛이 좋아진다.

苦手の 여자와 같이 사는 사람은 一生중 대부분 불행할텐데 그런 여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없고 다만 우메보시를 만들어 보게 하거나 토란 줄기를 데쳐 보게 하는 수밖에 판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苦手에도 뱀잡기, 벌(蜂)잡기를 잘하는 니가메와 이와는 전혀 다른 니가메가 있는지 또는 같은 사람이면서도 숨어 나타나지 않는 反面인지, 그런 여성의 苦手에도 역시 遺傳性이 있는 것일까?

같은 책의 7號에 “니가메와 귓불(耳朵)의 구멍”이라는 글이 실려 있는데 島根縣鹿足郡에서는 논에서 모내기를 할 때 뒷걸음질을 하다가 잘못 밧모를 감탕 속으로 밟으면 재빨리 니가메, 니가메, 니가메라고 세번 소리를 내어 외운다. 이래야만 괜찮지 않고 그냥 지나면 반드시 足痛이 생긴다고 믿고 있다. 播州의 赤穂郡, 三河의 豊川流域, 信州의 松本地方, 上伊那郡, 島根縣의 温泉津町, 信州北安曇郡 등에도 苦手の 說話가 傳해지고 있다고 한다.

日本の 民族學의 成果를 더듬어 보았는데 다음에 江戸時代의 用例를 주워 보기로 한다.

2

井原西鶴의 「好色一代女」(1686)의 分里數女(卷 2)에 피병의 급작스러운 腹痛을 『내 니가메가 약이 되니 밤이 밝을 때까지 배를 쓸었다』云云이라는 귀절이 있다.

京都의 江島其磧의 浮世草子「世間娘客氣」(1716)의 『뭇생긴 주체에 몸을 망치는 말향(抹香)과는 집 달』(卷 3의 第2)이 「안마장이에게 정성을 다하여 十四經을 잘 배우고 더군다나 타고난 苦手인지라 小兒의 虫痞(뱃배앓이)를 쓸어 고치는 데 코미를 터득하여 名手란 이름을 얻고」환자 치료에 겨움이 없었고 富村으로 이사를 가서 환자가 門前成市였다고 한다.

歌舞伎 18番의 「鳴神」에서도 『나의 손은 苦手이기 때문에 손이 닿으면 積聚가 나고 진정된다.』라는 臺詞가 있는데 初代의 市川團十郎이 中村屋에서 初演한 天和 4年(1684) 것에도 그 臺詞가 올라 있었는지 與否는 알 수 없다.

江戸時代에는 苦手는 不可思議한 能力을 지닌 손이며 보통사람과 달라서 그 손으로 누르면 腹痛이 낫는다는 것이었던 모양이다.³⁾ 그렇다면 醫學의으로도 興味를 끄는 문제라고 하여야겠다.

醫書와 關聯시킨 책으로서는 新義眞言宗의 僧侶이며 江戸眞福寺의 12代가 된 梅國(1720年歿)의 隨筆「櫻陰腐談」卷二에 「苦手」의 說이 있다.

客曰人有一等苦手何以試之.

答曰. 靈樞經第九官能篇云. 爪苦手毒. 爲事善傷者. 可使按積抑痺. 手毒者. 可使試按龜置龜於器下而接其上五十日而死矣. 手甘者復生如故也.

라고 하여 苦手는 「靈樞經」의 說이 起源이라고 한다.

2) 「定本柳田國男集」(筑摩書房), 第15卷, 491페이지.

3) 「日本國語大辭典」(小學館).

梅園의 「櫻陰腐談」은 꽤 널리 알려진 책이며 寶永 7年(1710)의 自序가 있으며 正德二年(1712), 正德三年(1713), 다시 享保十三年(1728)의 版이 있다. 그러나 苦手の 「靈樞經」 起源說은 梅園이 最初라고는 말하기 힘들다.

福岡의 黒田藩의 儒者이며 養生論者로서 高名한 貝原益軒(1630-1714)의 「診艸」의 卷之三에

苦手 靈樞云. 爪苦手毒. 爲事善傷者. 可使按積抑痺. 手毒者. 可使試按龜置龜於器下而按其上五十日而死矣.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苦手이다. 이런 者가 토란 줄거리를 꺾으면 그 맛이 쓰게 된다. 또 腹痛을 누르면 효과가 있다. 또 뱀을 잡으면 몸을 서리고 꿈쩍을 못한다. 흔히 뱀속임이라고 한다. 이런 것이 苦手이다.

라는 말이 있다. 「診艸」도 널리 읽혔다. 元祿 12年(1699)에 이루어지고 元祿 14年(1701)版, 享保 6年(1721)版, 文化 12年(1815)版이 알려져 있다. 貝原益軒에 依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苦手라는 것이 존재하며 「靈樞經」의 苦手와 類似的한 것이 注目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大阪의 醫師인 寺島良安이 著作한 105卷의 圖解百科事典 「和漢三才圖會」의 人倫類(卷 7) 按摩項에

按凡按摩經絡擦引痲痺之術. 保養中一事也. 素問奇恒論云. 爪苦手毒爲事善傷者. 可使按積抑痺. 後漢華佗按摩能活人.

本書에는 正德三年(1713)의 林大學頭信篤의 序文이 있으며 自序는 正德 2年, 刊行은 正德 5年(1715)인 듯하다. 덧붙여 말하자면 「素問」에는 “奇恒論”이라는 篇은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은 記錄들은 17世紀末에서 18世紀 前半에 集中되고 있다. 이것에 무슨 意味가 있는 것일까?

3

「靈樞經」은 醫學의 古典이므로 漢方醫學의 渡來와 더불어 日本에 傳來되었다. 內閣文庫 및 其他에 現存하는 唐本の 「靈樞經」이 적지 않으며 岡西爲人博士의 研究가 이미 나와 있다. 그것에 의하면, 宋의 紹興乙亥 25年(1155) 史崧에 의하여 刊行된 이래 9卷, 12卷, 24卷의 3種으로 大別되는 많은 版本이 있다고 하지만⁴⁾ 日本版에 대해서는 簡單하게 言及한 데 不過하므로 여기서 補足하여 두기로 하자. 日本版, 즉 和刻本은 12卷本の 系統을 缺하지만 다음의 2種이 있다.

新刊黃帝內經 靈樞24卷 寬文 3年(1663) 雫下風月堂莊左衛門刊. 6冊.

이 版은 「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 24卷 12冊과 雙을 이루고 있으며 「寬文三禩十月穀旦雫下吉弘氏玄仍子書」의 「素問次註跋」이 「素問」의 末尾에 나오는 책과 「靈樞」의 末尾에 나오는 책이 있으며 刊行年月이 분명히 되어 있다. 이 「靈樞」의 原版는 繡谷書林周曰의 校刊本이며 單邊 10行 18字이다. 官能篇은 卷21에 실려 있다.

黃帝內經靈樞 9卷 寬文頃 京都書肆刊. 6冊.

이 版은 「黃帝內經素問」 9卷 9冊과 雙을 이루고 있으나 刊記는 없다. 板式은 雙邊 8行 18字이며 眉欄에 「鍼刺類」 등의 小篇目이 있다. 이 小篇目은 「素問」과 共通인 數字로 연결되어 있으며 實은 明의 張介賓의 「類經」(1624 原刊)의 12類와 360餘節의 數字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 9卷本은 「類經本」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⁵⁾ 「類經」 32卷, 「圖翼」 11卷, 「附翼」 4卷 計 40冊도 寬文中에는 이미 日本版이 있었다. 寬文 10年(1670)刊의 「增補書籍目錄」의 醫書項에,

1) 岡西爲人, “靈樞經について,” 「中國醫書本草考」(南大阪印刷センター) 1974, 47 - 66페이지. 또 影印正統道藏本 「黃帝素問靈樞集註」, 23卷도 集註가 아니며 「靈樞經」 그 自體이므로 23卷本도 追加해야 할 것이다.

5) 앞의 岡西論文에는 이 類經本에 該當되는 中國版의 記載가 없다. 後考를 기다린다.

- 18冊 素問靈樞 會稽庠生玄台子馬蒔仲化證證
 12冊 同 古 註 王氷註
 15冊 同 素 本
 5冊 同 知 要 雪國念菴李中梓父著
 40冊 同 類 經 張楷寶

이라고 되어 왔다. 最初의 18冊本은 寬永 5年(1628) 書金道伴刊行의 「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 9卷과, 역시 마찬가지로 「靈樞」의 9卷을 합친 것이며 明의 馬蒔의 撰이다.⁶⁾ 古註는 앞에 말한 寬文 3年(1663)刊의 王氷次註本이며 素本은 類經本이다. 知要는 寬文 2年(1662) 京都書肆武村市兵衛刊 「內經知要」⁷⁾이며 마지막이 「類經」이다. 當時, 以上の 5種이 「素問」과 「靈樞」의 學習上 특히 必要하다고 認定된 책이었을 것이다.

17世紀의 日本에서는 「素問」과 「靈樞」가 流行되었다고 하여도 пен찮을 것이다.

「靈樞經」에 관해서 말하자면 값비싼 唐本이 아니더라도 註證發樞, 24卷本, 9卷本, 類經 등의 4種의 知刻本에서 情報로서의 知識이 日本人 속으로 흘러들어와 咀嚼消化되어 日本化된 徑路를 밟은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17世紀末에서 18世紀 前半에 集中된 苦手に 關한 關心의 背景이었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4

梅國이 말하는 「靈樞 第9官能篇」은 類經本, 즉 和刻인 9卷本으로 特定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官能은 第9卷 6冊의 첫머리에 실려 있으며 眉欄에 「鍼刺十一」이라고 表示되어 있다. 다음에 그 後半을 실리기로 한다.

雷公問於黃帝曰. 鍼論曰. 得其人乃傳. 非其人勿言. 何以知其可傳. 黃帝曰. 各 得其人 任之其能. 故能明其事. 雷公曰. 願聞官能奈何. 黃帝曰. 明目者可視色. 聽耳者. 可使聽音. 捷疾辭語者. 可使傳論語徐而安靜. 手巧而心審諦者. 可使行鍼艾理血氣 而調諸逆順. 察陰陽而兼諸方. 緩節柔筋而心和調者. 可使導引行氣. 疾毒言語輕人者. 可使唾癰呪病. 爪苦手毒. 爲事善傷者. 可使按積抑痺. 各得其能. 方乃可行. 其名乃彰. 不得其人. 其功不成. 其師無名. 故曰得其人乃言. 非其人勿傳. 此之謂也. 手毒者. 可使試按龜. 置龜於器下而按其上. 五十日而死矣. 手甘者 復生如故也.

「素問經」에서는 黃帝가 質問者이지만 「靈樞經」에서는 雷公이 質問하고 黃帝가 答하고 있다. 內容을 整理하면 8種의 人間의 能力을 列舉하고 그 능력에 따라서 職種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8種의 能力과 職種을 意譯하면 ① 눈이 밝은 사람(明人)은 面診을 ② 귀가 밝은 사람(聰聽人)은 病人의 5音を 들어 診斷하는 일을 ③ 病에 대한 判斷이 빠른 사람(智慧人)은 병의 記述을 ④ 寡默하여 재주있는 사람(靜慧人)은 針灸를 ⑤ 몸이 柔軟한 사람(調柔人)은 導引과 行氣를 ⑥ 입이 쓰고 가려운 사람(口苦人)은 祝儀를 ⑦ 苦手인 사람은 按摩를 ⑧ 甘手인 사람은 죽은 生物을 되살려내는 일을 한다.

篇名の 「官能」에 對해서도 註釋이 必要하다. 오늘날의 官能이란 뜻은 感覺의 機能이라고 理解되고 있지만 「靈樞經」에서는 才能있는 사람을 官吏로 任命한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記載의, 背景이 되는 社會는 封建制나 世襲制가 아니라 人間의 能力에 差가 있고 適性과 不適性이 있음을,

6) 이보다 빨리 慶長 19年(1614) 梅壽據萬曆戊子寶命堂刊活字重刊本이 있다. 「靈樞經」의 註釋本으로서는 最古의 것이다.

7) 正德 5年(1715) 大坂敦賀屋九兵衛印本도 있다.

8) 「類經」에는 卷19 鍼刺類의 「官能」에 註를 붙여 收載하고 있다.

認定하고 있으며 職業의 選擇에 어느 정도의 自由가 있음을 前提로 하고 있다. 理想을 論하면서도 能力主義와 職業의 選擇의 自由를 問題삼고 있는 點은 오늘날의 우리 社會의 문제로서도 어색하지 않는 新鮮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5

17世紀, 日本의 「素問經」이나 「靈樞經」이 盛行하고 있는 가운데서 明의 張介賓의 「類經」이 一定한 役割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張介賓은 「素問經」과 「靈樞經」을 합쳐서 內容에 따라 12類, 360餘節로 配列을 고쳐서 綜合的으로 理解하려고 試圖하였다. 和刻의 9卷本인 「靈樞經」은 9卷本の 「素問經」과 마찬가지로 「類經」의 影響下에 있었다.

明의 張介賓은 전연 몰랐지만 「素問經」과 「靈樞經」을 綜合的으로 理解하려고 한 사람으로는 이미 隋時代에 楊止善이 있었다. 「黃帝內經太素」 30卷이 그것이다. 「太素經」은 新舊의 「唐志」에 올라 있으며 「宋志」에는 3卷으로 올라 있으며 그 이후 中國에서는 佚書가 되어버렸다.

京都의 福井楓亭은 文政 3年(1820)에 御室의 坊官의 집에서 얻은 「太素經」 舊鈔本の 卷 第27을 模刻出版하였다. 이것이 刺戟이 되어 그후 天保에 이르러 淺井正封・正翼 및 小島尙質 등에 의하여 仁和寺에서 「太素經」의 舊鈔本이 發見되었다. 도합 7卷이 缺損이지만 「太素經」의 出現에 의하여 「素問經」과 「靈樞經」의 研究는 새로운 段階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⁹⁾

目下 문제가 되고 있는 「靈樞經」의 「官能」은 「太素經」에서는 卷19 「設方」의 8章의 一節로 올라 있으며 楊上善의 註가 있다. 文字의 加減은 「官能」에 關한 限 「靈樞經」과 大差 없지만 註는 本文의 理解를 돕고 있다. 前節의 經文의 解釋은 楊上善의 註에 全的으로 따르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現在의 「靈樞經」은 南宋의 紹興乙亥(1155)보다도 書誌學上으로 遡及할 수는 없다. 따라서 「靈樞經」이라는 모습으로 그 時期 以前에 日本에 舶來했을 可能性은 적다고 할 수밖에 없다. 紹興의 史崧本이 朝鮮本에 의하였다는 說이 있으므로 朝鮮을 들러서 왔을 可能性은 남아 있다.

또 한편 「續日本紀」 天平寶字元年(757) 11月 9日의 勅에 醫生의 必須教科書로서 甲乙・脈經・本草와 더불어 「太素」가 올라 있으며 藤原佐世(897年卒)의 「日本現在所目錄」(9世紀後半)에도 올라 있다. 平安時代에 苦手の 知識이 「太素經」을 通하여 醫師로부터 日本의 民間에 流傳되지 않았으리라 斷言할 수는 없지만 情報의 傳達이 量에 比例함을 생각한다면 역시 17世紀의 和刻本 「靈樞經」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和刻本에서 흘러나와서 民間에 定着된 民俗이 18世紀初에 소중하게 다루어졌다는 해석을 하는 것이 實情에 가장 가까운 것이 아닐까.

昨年(1980) 3月 中國에 갔을 때를 機會로 하여 나는 中國의 先輩 및 知友에게 苦手の 習俗의 有無를 물어 보았다. 北京의 中醫研究所의 李經緯主任으로부터 江西 등에 있는 모양이지만 研究된 바는 없다는 대답이었다. 그러나 上海人民出版社의 胡道靜, 北京의 自然科學史研究所의 潘吉星, 上海中醫學院 醫史博物館의 傅維康 등 各 先生은 現在는 이미 存在하지 않는다는 대답이었다.

中國에 옛날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日本에 傳來되어 數世紀間에 걸쳐서 定着된 苦手の 傳承은 傳承의 經路의 決定에 따라 研究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日本에 定着된 諸條件을 究明함으로써 「靈樞經」 成立의 事情을 解明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本稿執筆의 主된 動機이다.

그런 意味에서는 오히려 지금부터 研究가 시작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洪文和 옮김)

9) 石原明, “「內經」의 眞本人 國寶 「黃帝內經太素」에 관한 書誌學的考察,” 『漢方』의 臨牀, 1956, 3卷, 特集, 24-39페이지.

10) 岡西, 前掲論文.